

# 鼻의 生理機能에 대한 研究

許竣寧 · 姜政秀\*

## Abstract

### Literatural Study on Physiological Function of Nose

Heo Jun-Young O.M.D, Kang Jung-Soo O.M.D., Ph. D.

Dept. of Oriental Medicine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Taejon University, Taejon, Korea.

The following results obtained through studies related on nose.

1. Nose is called mingtang(明堂)·mianwang(面王), as it emphasize the meaning of viewing diagnosis(望診) and is called yuanpinzhimen(元牝之門), tianpinzhimen(天牝之門), qiqizhimen(七氣之門) as it emphasize the meaning of the entrance of atmosphere flow. Because it's position is the middle of face, we call tianzhongzhiyue(天中之嶽), zhongyue(中嶽).

2. As the organ of body, nose comes under the category of lung-iron(肺金), functionally comes under the category of heart-fire(心火). Functionally we can smell oder, organically nose is the pathway of respiration and to be resonator.

3. Wuzangliufu(五臟六腑) is arranged closely around the nose. The essence of wuzangliufu(五臟六腑) reflect nose, so nose becomes the standard of coloring diagnosis(色診).

4. We call nose is feihou(肺候), but it is not connected directly between the lung channel and nose. In case of lung symptom(肺證), first of all, nose become to appear the condition of lung, the lung channel and nose is close functionally.

5. The view of channels, nose is a connection with channels of yangming(陽明), bladder(膀胱), du(督脈) directly. By the connecting of each three channels, spleen stomach heart and kidney(脾胃心腎) are connected with indirectly. As the result of the relation, nose helps for body to breathe and to circulate qi(氣) and smell. And so the nature of wuzangliufu(五臟六腑) appear to the nose.

6. Particularly, the yangming channel(陽明經), and the bladder channel(膀胱經) are important. Because air-qi(天氣) reach to kidney·lung through nose, ground-qi(地氣) reach to spleen·stomach through mouth and yingwei(營衛) revolve through the bladder channel(膀胱經). As the result nose becomes the essential organ of circulation of yingwei(營衛), ascent and descent of qi(氣).

## I. 緒 論

코는 呼吸作用과 嗅覺作用을 담당하여 人體의 건강을 지켜나가도록 하는데, 냄새를 맡는 嗅覺作

用을 통하여 좋은 공기와 음식물을 취사 선택할 수 있게 하므로서 입과 胃腸과 함께 하루 세끼의 식사를 올바르게 함으로써 體內的 營養供給이 充足하여지며, 특히, 코는 肺臟과 心臟에 연결되어 단 일초라도 쉬새없이 呼吸과 搏動을 계속하여 體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生理學教室

內循環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生命이 유지되니 이것을 生命現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코는 사람의 얼굴 한가운데 위치하여 顔面을 나누어 관찰하는 基準이 될 뿐 아니라 顔面을 天人地 三停으로 나눌 때 人停에 該當되므로 현재 자신의 상황을 살피고, 上位에 該當하여 後天의 基盤이 되는 곳이니 이곳의 氣色으로 몸 氣運 狀態의 吉凶과 禍福 및 疾病狀態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코는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태가 이루어질 때 가장 먼저 되는 기관이라고 한다<sup>1)</sup>. 《玉篇》에 찾아보면 가장 윗조상을 鼻祖라고 하듯이 五臟六腑, 十二經絡의 시작이 手太陰肺經에서 시작하고 足厥陰肝經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코는 外官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코의 呼吸作用이 停止하면 사람은 죽는 것이다. 사람의 얼굴 正中央이니 中央은 土로서 脾胃와 通하고 呼吸은 肺에 通하며 嗅覺은 心臟과도 연관되는 것이다.

사람의 五官, 즉 耳目口鼻舌은 모두 人體內的 臟腑 및 經絡과 不可分の 關係가 있으므로 이들은 각각 獨立하여 그 機能을 수행할 수 없다.

趙<sup>2)</sup> 등은 “以五臟開於五部分 陰陽言之 在腎肝居陰 故耳目二竅陰精主之 在心脾肺居陽 故耳鼻舌三竅陽精主之”라 하여 肝腎에 陰이 居하므로 耳目은 陰精이 主하며, 心脾肺에 陽이 居하므로 舌鼻口三竅는 陽精, 즉 陽氣가 主한다고 하여 五臟과 五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鼻에 대한 중요성을 認識하며 古來도 鼻에 대한 諸般 醫書와 醫家의 설명을 들어 鼻의 作用에 대한 生理的인 現狀을 文獻的인 토대를 바탕으로 論述하고자 한다.

## II. 本 論

### 1. 鼻의 異名

《靈樞·五閱五使》<sup>3)</sup>에서는 “脈見於氣口 色見

於明堂”이라 하였으며, 《靈樞·五色》<sup>4)</sup>에서는 “五色決于明堂 明堂者 鼻也”라 하였고, 《東醫寶鑑》<sup>5)</sup>에서는 “其在小兒面部 謂之明堂”이라 하니 鼻가 人體 顔面의 正中央에 위치하여 五岳의 中央이 되며 面部 七竅의 기준이 되므로 明堂이라 일컫게 되고 아울러 面部色診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였으니, 《素問·五運行大論》에서 “黃帝坐明堂 始正天綱 臨觀八極 考建五常”라 하니 明堂이란 中心이 되고 綱領이 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鼻部를 중심으로 한 面部 正中央에 五臟六腑의 精氣가 集中되어 있게 되는 것이니 鼻의 根部(山根)에 心肺가 놓여있고, 鼻주위에 六腑가, 下部에 生殖器가 놓이게 되었으니 明堂과 그 주위의 色澤으로 五臟六腑의 精氣 變化를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醫學正傳》<sup>6)</sup>에서는 “鼻爲元牝之門”라 하고, 《景岳全書》<sup>7)</sup>의 論證에서는 “鼻爲肺竅 又曰元牝乃宗氣之道而實心肺之門戶”라고 하니 이 句節의 註釋에서 ‘天牝 鼻也 鼻受天之氣 故曰天牝’라 하여 鼻는 肺의 竅입과 동시에 ‘天牝’이라고 하는데 이는 宗氣의 길이면서 실제로는 天氣가 出入하는 門戶인 까닭으로 心肺의 門戶라고 하는 것이니 이로 인해 心肺에 病이 있으면 鼻가 不利해진다고 한 것이다라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東醫寶鑑》<sup>8)</sup>에서는 “老子曰 谷神不死 是爲元牝 元牝之門 爲天地根 綿綿若存 用之不動 何謂元牝之門 答曰 鼻通天氣 曰元門 口通地氣 曰牝戶 曰鼻乃元牝之門戶也”라 하였고, 《靈樞·口問》의 “口鼻者 氣之門戶也”라는 句節에서도 天氣가 出入하는 곳으로서의 鼻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黃庭經》<sup>9)</sup>에서는 “天中之岳精謹修”의 梁註에

3) 楊維傑編, 黃帝內經靈樞經譯解, 태련국풍출판사, 대북, 1991, p.298.

4) 楊維傑編, 黃帝內經靈樞經譯解, 태련국풍출판사, 대북, 1991, p.367.

5)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87, p.236.

6) 陳夢雷, 醫部全錄 卷5,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7) 張介賓, 김영남譯, 國譯景岳全書, 一中社, 서울, 1992, pp.647~652.

8)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87, pp.337~338.

9) 이병서, 黃庭內景經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論

1) 이병서, 黃庭內景經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논문 5-2호, 1997.

2) 이병서, 黃庭內景經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논문 5-2호, 1997.

서 '天中之岳은 謂鼻也라 一名天臺니 消魔經에 云 鼻欲數按其左右하야 令人氣平이라하니 所謂灌溉中岳을 名書帝錄이라'한다 하고 "外應中嶽鼻齊位"의 梁註에서는 '中嶽者는 鼻也요 又爲臍也라 臍爲崑崙之山 脾爲七氣之門이라 位는 猶主也라' 하니 中嶽은 鼻이며 臍에 해당하고 脾는 七氣之門이고 位는 主한다는 뜻이라 하여 肺와 鼻 臍 脾가 呼吸을 主한다고 풀었다. 李는 註에서는 '鼻는 面部之中岳이니 諸氣之本이며 七氣之門이라' 했다.

鼻의 異名은 모두 天氣가 出入하는 곳이라는 意味를 重視하여 '元牝之門', '天牝之門', '七氣之門'이라는 名稱을 붙였으며, 顔面의 正中央으로서의 位置를 重視하며 望診의인 意味를 부여하여 '明堂', '天中之岳', '面王'이라 불리우게 되는 것이다.

2. 鼻의 生理作用

(1) 嗅覺作用

肺는 소리를 主管하고 鼻는 肺의 外候이다. 肺는 五行으로 말할 때 金이다. 소리는 金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肺가 소리를 主管한다. 肺가 主聲하고 鼻가 肺에 屬하였으나 소리를 듣지 못하고 香臭를 아는 것은 肺는 金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12陣法에 의하면 金이 巳에서 長生하고 南方 巳午未에서 巳가 丁火로서 臨官의 地이다. 火가 臟에 있어서는 心이 되고 心은 냄새를 主管한다. 그러므로 鼻가 비록 肺에 속하였으나 肺金이 心火의 位에서 發生하기 때문에 鼻가 香臭를 아는 것이다<sup>10)</sup>.

또한 嗅素의 微粒이 公기로 運搬되어 嗅覺上皮의 表面에 이르게 되면 嗅感覺이 생긴다. 즉 嗅素가 嗅線의 分비물에 溶解되면 嗅毛에 어떤 전기-화학적 자극을 준다. 이것이 嗅覺神經을 자극하고 그 興奮이 嗅球를 통하여 延髓, 大腦의 中樞에 전달되어 嗅覺作用을 한다<sup>11)</sup>.

(2) 呼吸作用

西方은 金의 位이며 白色은 金色이며 肺는 金臟에 속하고 鼻는 開竅하며 氣를 主管한다. 그러므

로 口鼻는 氣의 門戶이며<sup>12)</sup>, 鼻는 清氣가 出入하는 길이며 五氣가 鼻로 들어와서 心肺에 간직된다. 또한 呼하는 것은 心肺이며 吸하는 것은 肝腎의 氣이다. 宗氣란 胃內에서 發生하는 大氣로서 胸中에 축적되었다가 肺로 上出하여 呼吸을 管掌한다<sup>13)</sup>. 그 외에 異物이나 細菌을 防禦하는 作用을 한다. 즉, 五疫이 相染하게 되는 것은 鼻로 통하여 들어간다. 그러나 正氣를 간직하였을 때 이것이 방어되어 侵犯하지 못한다<sup>14)</sup>. 鼻腔은 正常의인 呼吸道의 起始部로서 코는 吸氣를 여과하며, 異物과 細菌을 제거하고 이것에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주어 深部 呼吸器를 보호한다. 鼻腔을 통하여 空氣는 鼻腔을 同一하게 充滿시키면서 흐르지만 多量으로 흐르는 部位와 少量으로 흐르는 部位가 있다. 따라서 다량으로 흐르는 부위에서 主流를 形成하는데 그것은 鼻前庭이다. 吸氣를 濾過하는 것은 코의 重要한 기능의 하나이다. 空氣 中에 汚染된 異物은 鼻毛에 걸리고 微細粒子는 鼻粘膜에 접촉되어 粘着性이 강한 粘膜上의 分비물에 쉽게 捕捉된다. 鼻腔內에는 多數의 細菌이 들어가나 事實상 數가 적은 것은 容해되기 때문이다. 鼻粘膜은 吸氣에 적당한 온도를 준다. 즉, 鼻腔은 甲介가 있어서 表面積이 크고 또 甲介에는 海綿體가 있어서 血液流出의 量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환경에 左右되지 않는다. 加濕은 粘膜의 腺分泌物와 血管 및 毛細血管 內에 漏出物의 混合物에 의하여 濕氣가 公급되기 때문이다. 鼻腔, 副鼻洞은 嗅域 甲介의 한 적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絨毛上皮로 덮혀 있다. 鼻腔의 絨毛運動의 방향은 鼻咽洞이고 副鼻腔의 것은 開口部이다.

(3) 聲音共鳴

鼻腔은 聲音의 共鳴器로서 役割한다. 따라서 喉頭에서 發生된 音은 擴散되고 鼻色을 變경한다. 이것은 韓醫學 理論으로는 肺가 鼻에 開竅하며, 肺氣

文 5-2호, 1997.

10) 扁鵲, 성낙기譯, 八十一難經解釋, 高文社, 서울, 1980 p.28, p.57.

11) 蔡炳允, 東醫眼耳鼻咽喉科學, 集文堂, 서울, 1997, pp.295~296, p.299.

12) 楊維傑編, 黃帝內經靈樞譯解, 태련국풍출판사, 대북, 1991, p.259.

13) 楊維傑編, 黃帝內經靈樞譯解, 태련국풍출판사, 대북, 1991, p.42.

14) 陳夢雷, 醫部全錄 卷5,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p.1284.

가 鼻로 통하고 있는 반면 肺가 소리를 주관하므로 共鳴하게 된다. 鼻共鳴의 결집을 鼻聲이라 한다. 鼻腔이 폐쇄되었을 때의 鼻聲을 閉鎖性鼻聲이라 하는 것으로서 心火가 亢極하여 鼻閉되었거나 異物에 의하여 폐쇄되었을 때 정확한 소리를 내지 못하는 狀態를 말하며, 鼻腔이 開放되었을 때의 鼻聲을 開放性鼻聲이라 하는 것으로서 鼻의 外部的 損傷 및 肺氣能의 喪失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 3. 鼻와 經絡과의 關係

《證治準繩》에는 鼻部 주위를 지나는 經絡들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다른 諸般醫書의 內容을 살펴보면, “鼻屬手太陰肺經”<sup>15)</sup>이라 하여 註에서 《素問·金匱真言論》<sup>16)</sup> “西方白色 入通於肺 開竅於鼻 畏熱”를 들고, 다른 저서에서는 《素問·陰陽應象大論》<sup>17)</sup>에서 “西方生燥, 燥生金, 金生辛, 辛生肺, … 肺主鼻, 其在天爲燥, 在地爲金, … 在藏爲肺, … 在竅爲鼻”를 들고 있다. 《難經·四十難》에 “鼻者 肺之候”라 하며 《血證論》<sup>18)</sup>에서는 “鼻는 肺竅이다. 鼻根은 太陰經脈과 相接한다. … 呼吸을 擔當하니 淸虛한 길로써 天地가 서로 通하는 門戶이다.”라 하였으니 직접적으로 肺經과 連接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발견하기 어려우며 다만 ‘肺病者 喘息鼻張’라는 식으로 鼻病이 肺와 無關하지 않음과 天氣가 肺部로 入하고 胸中에 積함과 出함이 鼻의 길을 빌어 痛하므로 氣의 升降이 이루어짐으로 鼻는 肺의 官이 되며 機能的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鼻가 肺太陰經에 屬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史料된다.

또 “又屬手少陰心經”<sup>19)</sup>이라 하여 註에서 李東垣의 말을 들어 “鼻本主肺 而復能聞香臭者 鼻中有心

庚金生于巳也 素問曰 五氣入鼻 藏于心肺 心肺有病而鼻爲之不利也.”이라 하였다.

“又屬手足陽明大腸 胃經 督脈之交會”<sup>20)</sup>이라 하고 註에서 “傷寒二日, 陽明受之. 陽明主肉, 其脈俠鼻絡于目, 故身熱日瘥, 而鼻乾不得臥. 蓋胃脈行身之前 而胸爲胃肺之室 邪熱在陽明則肺受火制 故用辛寒以淸肺所以號爲白虎湯也”이라 하였고, 同書에서 “屬足陽明胃經陰驕脈之會”, “俠鼻孔兩旁五分 名迎香穴 屬手足陽明大腸 胃經之會”라 하였고, 鼻淵을 설명하면서 “額謂鼻額也 足太陽脈起于目內眥 上額交巔 上入絡腦 足陽明脈起于鼻交頰中 旁約太陽之脈 今腦熱則足太陽逆 與陽明之脈俱盛 薄于頰中 故鼻頰酸痛也 熱盛則陽絡溢 陽絡溢則衄出血也 血出甚 陽明太陽脈衰 不能營養于目 故目瞑 厥者氣逆也 皆有氣逆而得之 宜服防風湯”<sup>21)</sup>이라 하였고, 또 “鼻 頰中 頰亦作顴 鼻山根也 俗呼鼻梁 俗足陽明胃經 督脈之會”<sup>22)</sup>이라 하였으며, 《素問·氣厥論》<sup>23)</sup>의 “膽移熱于腦 則辛頰鼻淵. 傳爲衄鱗 瞑目”을 언급하여 註하되 “足太陽膀胱脈起目內眥 上額交巔絡腦 陽明脈起于鼻 交頰中 旁約太陽之脈. 今腦熱則足太陽逆與陽明之脈俱盛 薄于頰上 故頰辛鼻淵. 鼻淵者 濁涕下而不止如水泉也 熱盛則陽絡溢 陽絡溢故衄 衄者鼻出血汁也 又謂之鱗 血出甚則陽明太陽脈衰 不能榮于目 故目瞑也”라 하였으니, 足太陽膀胱經은 目內眥에서 起하여 額으로 上行하여 巔頂에서 사귀고 腦에 絡한다 하고 陽明脈은 鼻에서 起하여 頰中에서 交하여 太陽脈의 옆을 끼게 된다. 이제 腦熱이 된 것은 足太陽經이 逆하고 手足陽明之 脈이 모두 盛하여져서 頰中으로 薄하므로 鼻가 酸痛하면서 鼻淵의 症狀이 있게 되는 것이다. 鼻淵이란 濁涕가 끊임없이 샘처럼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이며, 熱이 盛하면 陽絡이 넘쳐나게 되어 衄이 되는 것이며 鱗이라는 것은 出血이 甚

15) 王肯堂, 證治準繩, 新문풍출판고분유한공사, 臺北, 1987, p.524.

16) 程士德主編, 素問注釋滙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p.63.

17) 程士德主編, 素問注釋滙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p.87.

18) 唐容川, 尚志齋論症備原卷四, 國譯血證論, 一中社, 서울, 1997, pp.76~80.

19) 王肯堂, 證治準繩, 新문풍출판고분유한공사, 臺北, 1987, p.524.

20) 王肯堂, 證治準繩, 新문풍출판고분유한공사, 臺北, 1987, p.524.

21) 王肯堂, 證治準繩, 新문풍출판고분유한공사, 臺北, 1987, pp.525~526.

22) 王肯堂, 證治準繩, 新문풍출판고분유한공사, 臺北, 1987, p.524.

23) 程士德主編, 素問注釋滙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p.531.

하여 陽明太陽脈이 衰하여 目을 榮할 수 없어 目 瞑해지므로 이에 膀胱經과 鼻는 밀접하다.

《東垣十書》<sup>24)</sup>에서는 《靈樞·邪氣藏府病形》의 “夫十二經脈三百六十五絡 其血氣皆上于面 而走空竅 其精陽氣上走于目而爲睛 其別氣走于耳而爲聽 其宗氣 上出于鼻而爲臭”을 언급하고 註에서 “宗氣者 胃腑所生之大氣 積于胸中 上出于肺 以司呼吸 故出于鼻而爲臭”라 하여, 人體의 十二經脈 三百六十五絡을 통해 氣血이 面部로 主行하고 있음을 들어 顔面의 孔竅와 經絡과의 聯關性과 胃氣와 관련됨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연관되어서 다른 經絡인 膀胱經, 督脈과 다른 臟腑와 연관되면서 鼻의 生理와 病理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部分이 諸般書籍들에 자주 거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醫部全錄》<sup>25)</sup>에 정리된 《內經》의 내용을 살펴보면, 《靈樞·熱論》에서는 “傷寒二日, 陽明受之. 陽明主肉, 其脈依鼻絡于目, 故身熱目疼, 而鼻乾不得臥”라 하고, 《素問·繆刺論》에서는 “邪客于足陽明之經 令人鼽衄”라 하고, 《靈樞·經脈》에서는 “大腸手陽明之脈 其支者 上挾鼻孔 所生病者 目黃 口乾 鼽衄”, “足陽明之脈起于鼻之交頰中 下循鼻外 所生病者 鼽衄”이라고 하여, 陽明經이 鼻를 끼고 循行하고 있으므로, 鼻病의 根源이 陽明經의 異常이라고 파악하였고, 각종 疾病과 聯關지어 陽明經과의 關係性을 언급하고 있으며, 《內經》 이외의 書籍<sup>26)</sup> 즉 《奇效良方》에서는 鼻窒과 嚏痒을 설명하되, 이것은 熱이 陽明胃之經에 들어간 것이니 “鼻者 足陽明胃經所主 陽明之脈左右相交注于鼻孔”라 하였고, 《證治準繩》<sup>27)</sup>에서도 “陽明之脈挾鼻絡目 結于迎香 左之右 右之左 去鼻孔各開五分 是穴”라 하며 鼻가 肺의 竅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陽明脈이 鼻를 끼고 지나면서 目에 連絡되어 있으면서 迎香穴에서 結하여 左右

로 交叉하고 있음으로 陽明脈의 影響을 많이 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鼻者肺竅 而足陽明挾鼻上至目內眥 其位居面之中 屬土 爲呼吸氣息出入之門戶 氣血之精明者皆上注于面 入于其竅”이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肺와 陽明經과의 관계는 대한 언급을 살펴 보면 《東垣十書》에서 “宗氣者 胃腑所生之大氣 積于胸中 上出于肺 以司呼吸 故出于鼻而爲臭”라 하니 鼻에서 呼吸이 이루어지는 것은 胸中の 宗氣 때문이며 이 宗氣는 胃에서 生成된 것으로 이로 因해 胃氣의 도움을 받아 鼻로 呼吸과 嗅覺이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으며, 《證治準繩》에서도 “陽明脈依鼻絡于目, 故身熱目疼, 而鼻乾不得臥. 蓋胃脈行身之前 而胸爲胃肺之室 邪熱在陽明則肺受火制 故用辛寒以清肺所以號爲白虎湯也”이라 하여 鼻와 胃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다.

“屬足太陰脾經”<sup>28)</sup>하여 註에서 《素問·刺熱》의 내용을 빌려 “脾熱病者 鼻先赤”이라 하고 있다.

《黃庭經》<sup>29)</sup>에 보면 “不觀之鹿與龜乎 鹿通督脈而運尾閭之精 龜通任脈而納鼻息之氣 追動性元 陰降也 若人求壽而必求之督任以盡升降之功 則亦能不死矣 蓋兩腎之中 乃玄關一竅之處 中虛而太極欲動未動之妙 涵焉 號赤子府라” 하여 任脈과 督脈으로 인한 人體 氣의 升降에 대하여 鼻息이 중요하게 관계되고 있음을 언급하는 구절이 있으며, 督脈의 分布 經路<sup>30)</sup>를 살펴 보면 ‘下腹部의 胞中에서 起始하여 아래로 會陰으로 나온 후 背部正中線을 따라 脊柱를 順行하여 위로 項後의 風府穴에 이르러 腦에 入하고 동시에 項에서 頭部正中線을 따라 頭頂, 額部, 鼻柱를 지나 上脣에서 巔交穴에 이른다. 그 別絡은 下腹部에서 直上하여 臍를 통과하여 위로 心臟을 通過하고 喉部로 進入하여 위로 이에 이르

24) 陳夢雷, 醫部全錄卷5,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pp.1289~1290.

25) 陳夢雷, 醫部全錄卷5,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pp.1281~1284.

26) 陳夢雷, 醫部全錄 卷5,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p.1299.

27) 王肯堂, 證治準繩, 新문풍출판고분유한공사, 臺北, 1987, p.524.

28) 王肯堂, 證治準繩, 新문풍출판고분유한공사, 臺北, 1987, p.524.

29) 이병서, 黃庭內景經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論文 5-2호, 1997.

30) 홍영식, 奇經八脈과 八脈交會穴에 對한 文獻의 考察, 대전대학교논문 5-1호, 1997.

고 口脣을 돌아 안의 下方 中央部位에 達한다. 足太陽膀胱經에서 함께 內眼角에서 起始하여 額部로 上行하여 頭頂部에서 足太陽膀胱經과 交會하고 腦에 入絡하며, 다시 돌아 나와 별도로 項으로 下行하여 肩膊의 內側을 따라 脊柱의 兩傍을 끼고 下行하여 腰中에 이르러 腎臟과 連繫된다. 그 絡脈은 會陰部에서 尾骨端을 거쳐 腎部를 비스듬히 두르고, 大腿의 內後側에서 上行하는 足少陰腎經 및 足太陽膀胱經의 經脈과 相會하고 다시 脊柱를 貫通하여 腎臟에 屬한다.'라 하여 流注하는 經路를 살피자면 心臟과 腎臟을 督脈이 貫통하면서 膀胱經, 腎經과 密接하게 循行하여 氣運이 升降이 이루어지며 위로는 腦에 이르고 아래로는 會陰에 이르게 되며, 腦를 지나 鼻에 連絡되기 때문에 鼻淵을 腦漏라고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膀胱經에 대한 논설을 들어 비교하면 “夫太陽膀胱中所化之氣는 山氣海循衝任하여 過膈於肺하여 出之於鼻하여 爲呼出氣하고 膀胱所化之氣는 又有內從三焦脂膜하여 出諸氣街循肌肉達於皮毛爲衛外之氣하니 人知口鼻出氣하다.”라고 말하게 된 것이다.

鼻와 經絡의 關係를 정리하면 手陽明大腸은 코, 口脣의 중앙인 人中穴의 左右에서 나온 經脈과 交叉하고 다시 口鼻를 挾하고 迎香穴과 胃經과 만난다. 足陽明胃經은 大腸經의 終點인 迎香穴에서 起始하여 鼻莖을 上行하여 그 上端인 山根에서 左右로 交接하고 다시 相離하여 膀胱經의 目內眥인 睛明穴을 지나 直上하여 髮際部에 到達하고 通天에서 百會와 사귀고 다시 胸中으로 들어와서 腦와 연결된다. 그러므로 督脈經과도 關係가 있으며 西方白色이 肺로 들어가서 通하고 鼻에 開竅하므로 手太陰肺經과 生理的인 機轉이 이루어지며, 香臭를 알고 肺의 長生하는 곳인 心과 關連하므로 手少陰心經이 여기에 作用하고, 居膠穴에서 足陽明胃經과 陰蹻脈이 만나기 때문에 陰蹻脈과도 相連되고 있다. 또한 五行的인 關係로서 鼻는 中央土이며 脾 역시 中央土이기 때문에 反應이 나타난다. 12經脈과 365絡의 血氣가 얼굴로 上走하여 空竅로 連絡되므로 精한 陽氣가 눈으로 가서 睛이 되고 귀로 가면 들을 수 있고 宗氣가 鼻로 나와서 냄새를 맡을 수 있다.<sup>31)</sup>

이런 相關性에 대한 經絡路로 있는 질환들을 정리하면 腦熱이 있을 때는 足太陽經이 逆上하거나 陽明의 脈이 旺盛하여 頰中을 上搏하므로 鼻가 疼痛하면서 濁涕가 계속 흘러 鼻淵을 形成하고 熱이 旺盛하여 陽絡이 流溢하면 鼻出血이 되며·手太陰肺經, 手少陰心經이 여기에 關係하므로 心肺가 病이 있으면 鼻機能이 원활치 못할 뿐만 아니라 냄새를 맡을 수 없고 手足陽明經이나 督脈經에 病邪가 侵犯하였을 때 呵欠이나 噴嚏가 일어나고 鼻塞이 된다. 이것은 肌肉이나 經絡의 질환으로서 陽明經에 熱이 鬱結되어 發生한 것이며, 足太陰脾經에 熱이 있을 때는 鼻가 赤色을 띠고 脾風이 있을 때는 黃色을 띄게 된다.<sup>32)</sup>

#### 4. 鼻와 臟腑와 關係

##### (1) 肺와의 關係

肺와 鼻에 대한 <素問>의 구절은 다음과 같다.

<素問·金匱眞言論><sup>33)</sup> “西方白色 入通于肺 開竅於鼻 藏精于肺”

<素問·陰陽應象大論><sup>34)</sup> “肺主鼻”

<靈樞·本神><sup>35)</sup> “肺藏氣 氣舍魄 肺氣虛則鼻塞不利 少氣實 則喘喝 胸盈仰息”

<靈樞·脈度><sup>36)</sup> “肺氣通于鼻 肺和則鼻能知香臭矣”

또한 <黃庭經><sup>37)</sup>의 “鼻神玉壘字靈堅”에서 梁은 註에서 ‘玉壘之骨이 象玉也라 神氣通天出入不竭故로 曰靈堅이라’이라 하고, 李는 註에서 “鼻神名玉壘은 崗阜曰壘이니 鼻隆於面하야 阜骨脆瑩이 如玉且鼻也하야 莫逃察焉이라 鼻乃肺神所屬이요 肺屬金하니 堅莫如金故로 字靈堅이라 胎之成形이 先結

31) 蔡炳允, 東醫眼耳鼻咽喉科學, 集文堂, 서울, 1997, pp.295-296.

32) 蔡炳允, 東醫眼耳鼻咽喉科學, 集文堂, 서울, 1997, p.299.

33) 程士德主編, 素問注釋匯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p.63.

34) 陳夢雷, 醫部全錄 卷5,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p.1281.

35) 陳夢雷, 醫部全錄卷5,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p.1283.

36) 陳夢雷, 醫部全錄卷5,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p.1285.

37) 이병서, 黃庭內景經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論文 5-2호, 1997.

乎鼻하고 及形死而毀도 亦鼻先脫也라 首成而首毀하고 首得而首失은 理數自然이라"하니 鼻는 肺에 屬하면서 人體가 胎에서 生成될 때 제일 먼저 생기니 이로 인해 診斷과 豫候 및 人體 精氣狀態를 볼 수 있는 首가 되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鼻와 연관된 臟腑와 經絡·疾病의 내용들이다.

《瘡瘍全書》<sup>38)</sup> “鼻居面中 爲一身之血運 而鼻孔爲肺之竅 其氣上通于腦 下行于肺 若肺氣清 氣血流通 百病不生 肺氣盛 一有阻滯 諸病生焉”

《奇效良方》<sup>39)</sup> “鼻者肺之通竅 主清氣出入之道路. 若氣血和平 陰陽升降 則呼吸通和 榮衛行焉 鼻和則知香臭矣 或六淫七情 內外傷感 又因飲食勞倦 因而鼻氣不得宣通 清道壅塞.”

《證治準繩》 “鼻屬手太陰肺經-素問曰 西方白色入通於肺 開竅於鼻 畏熱 靈樞曰 肺病者 喘息鼻張 又曰 肺虛則鼻塞不利 和則能知香臭矣”

《景岳全書》 “鼻爲肺竅 又曰元牝 乃宗氣之道而實心肺之門戶”

《三因方》<sup>40)</sup> “肺爲五臟華蓋 百脈取氣于肺 鼻爲肺之闔闔 吸引五臭 衛養五臟 升降陰陽 故鼻爲清氣道”

《斷病提綱》<sup>41)</sup> “肺爲闔闔鼻爲之 升降陰陽總在斯 鼻觀故爲清氣道 主聞香臭內和宜 涕涕鼻洞 肺傷風 腦冷常常出濁膿 經脈壅時還上衄”

《直指方》<sup>42)</sup> “肺爲 氣之主 通竅于鼻 鼻者 清氣出入之道路也 陰陽升降 氣血和平 則一呼一吸 營衛行焉”

《聖惠方》<sup>43)</sup> “夫肝藏血 肺主氣 肺開竅于鼻 血之與氣 上隨而行 內營腑臟 外循經絡 腑臟有熱 熱乘血氣 血性得熱 卽流溢妄行 發于鼻者 爲鼻衄也

臟虛血盛 故衄不止矣”

그리고, 黃元御의 《四聖心源》<sup>44)</sup>의 鼻口根原論에서 “鼻口者 手足太陰之竅也. 脾竅於口而司五味 肺竅於鼻而司五臭.”이라 하고, “肺竅於鼻 宗氣之所出入. 宗氣者 衛氣之本 大氣之搏而不行 積於胸中 以貫心肺而行呼吸者也. 衛氣閉塞 則宗氣蒸蕪 失其清肅 故鼻柱壞也.”라 하며, 鼻口根原論에서 “鼻病者 手太陰之不清也. 肺竅於鼻 司衛氣而降斂. 宗氣在胸 衛陽之本 貫心肺而行呼吸 出入鼻竅者也. 肺降則宗氣清肅而鼻通 肺逆則宗氣壅阻而鼻塞. 涕者 肺氣之熏蒸也. 肺中清氣 氤氳如霧 霧氣飄灑 化爲雨露 而輸膀胱 則痰涕不生. 肺金不清 霧氣瘀濁 不能化水 則凝鬱於胸膈而痰生 熏蒸於鼻竅而涕化. 痰涕之作 皆由於辛金之不降也”이라 하니, 肺가 직접적으로 經絡과 臟腑로 연락되지 않지만, 胸중에 心肺가 있고, 그 心肺에 宗氣가 쌓이므로 호흡이 이루어지고, 心의 嗅覺과 肺의 呼吸작용이 일어나므로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 있고, 鼻를 肺之候라 하는 이유이다.

(2) 鼻와 다른 臟腑와의 關係

① 鼻와 心과의 關係

心和 鼻와의 관계는 《難經》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難經·四十難》<sup>45)</sup> “經에 言 肝主色 心主臭 脾主味 肺主聲 腎主液이라하야는 鼻者는 肺之候로대 而反知香臭하고 耳者는 腎之候로대 而反聞聲하니 其意何也오 然이라 肺者는 西方金也라 金生於巳하며 巳者는 南方火오 火者는 心이오 心主臭라 故令鼻知香臭하니라 腎者는 北方水也라 水生於申하며 申者는 西方金이오 金者는 肺오 肺主聲이라 故令耳聞聲하니라”하여 鼻가 肺에 屬한 五官이기는 하나 作用面에서 心의 影響을 받고 있음을 적은 句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붙인 註釋들은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주로 五行陰陽의 生克關係 胞胎關係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難經》에 대한 註釋을 중심으로 살펴 정리하면, 本難의 內容은 五臟의 所主를 提示하면서 ‘心主臭’하는 關

38) 陳夢雷, 醫部全錄卷5,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p.1287.

39) 陳夢雷, 醫部全錄卷5,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p.1299.

40) 浙江省中醫研究所編, 醫方類聚,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79, p.452.

41) 浙江省中醫研究所編, 醫方類聚,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79, p.453.

42) 楊士瀛, 仁濟直指方, 東醫社, 서울, 1978, pp.85~86.

43) 浙江省中醫研究所編, 醫方類聚,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79, p.460.

44)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四聖心源),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pp.129~131.

45) 本間祥白, 難經之研究, 정언출판사, 1965, pp.260~262.

係에 대해서 論述하고 있다. '心鼻'와의 關係로 '五行長生'의 理致에 따라서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各家들은 여러가지 方法으로 考察하고 있는데, 《本義》에서는 經絡의 連結로써 說明하고자 하였다. 《集注》에서는 五行의 象으로서 說明하고자 하였다. 《圖注》에서는 '五行長生'의 理致로 說明하고 있으며 《經釋》에서는 陰陽의 理致로 說明을 하였고 또 本難에서 主張하는 '五行長生'의 理致를 批判하였다. 《縣解》에서는 肺와 腎이 内部에 火와 金을 內包하고 있다고 보아 '相因之理'로 說明하였다. 《古義》에서는 '胎化之變'으로 說明하고자 하였다. 《衰腋》에서는 '五行長生'의 理致로 說明하고 있다. 以上の 內容을 綜合해 보면 本難의 內容을 '五行長生'의 理致로 說明하고자 하는 境遇가 있었고, 經脈의 流注를 가지고 說明하려고 하는 境遇가 있었으며 陰陽의 理致로 說明하고자 하는 境遇가 있었으며 '胎化之變'을 가지고 說明하려고 하는 境遇가 있었다.

《內經》의 內容을 살펴보면 《素問·五藏別論》<sup>46)</sup> “五氣入鼻 藏于心肺 心肺有病而鼻爲之不利也”의 註에서 '心肺居上爲陽 肺乃心之蓋而主氣 開竅于鼻 故病則鼻不利也'라 하여 鼻不利의 病證이 心과 關係됨을 밝히고 있는데, 李東垣은 그 저서에서 “又一說 難經云 心主五臭 肺主氣 鼻者肺竅反聞香臭者 何也 蓋以竅言之肺也 以用言之心也 因衛氣失守 寒邪客于頭面 鼻亦受之不能爲用 是不聞香臭矣 故經曰 心肺有病 鼻爲之不利 潔古曰 視聽明而清涼 香臭辨而溫暖者是也 治法宜先散寒邪 後補衛氣 邪心肺之氣得交通 則鼻利而聞香臭矣 麗澤通氣湯主之<sup>47)</sup>”하고 또 體屬肺用屬心란 論說에서도 “經云 五氣入鼻 藏于心肺. 難經云 肺主鼻 鼻和則知香臭 潔古云 視聽明而清涼 香臭辨而溫暖 此內受天之氣而外利于九竅也 夫三焦之竅 開于喉 出于鼻 鼻乃肺之竅此體也 其聞香臭者 用也 心主五臭 舍于鼻 蓋九竅之用皆稟長生爲近 心長生在西 西者肺 故知鼻爲心之所用而聞香臭也 故肺有病而鼻爲之不利

也 此明爲清氣所奉于天 而心勞胃損則受邪也<sup>48)</sup>”라 하여 五官으로 鼻는 肺에 屬하나 이는 體로서의 意味이며 실제로 나타나는 用으로서의 主體는 心이라고 밝히고 있다. 덧붙여 脾胃의 중요성을 함께 論說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에 '腸胃·脾와의 關係'에서 밝히겠다.

이에 대하여 《景岳全書》<sup>49)</sup>에서는 “鼻爲肺竅 又曰元牝 乃宗氣之道而實心肺之門戶 故經曰 心肺有病而鼻爲之不利也然其經絡所至專屬陽明 自山根以上則連太陽督脈 以通于腦 故此數經之病皆能及之 若其爲病 則窒塞者謂之鼽”이라 하여 經絡과 연관시키면서 '鼻는 肺의 竅이고 또한 天牝이라고 하는데 宗氣의 길이지만 실제로는 心肺의 門戶인 까닭으로 心肺에 病이 있으면 鼻가 不利해 진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經絡이 도달하는 것은 전적으로 陽明에 屬하고 山根의 이상은 太陽과 督脈에 이어져서 腦로 통하는 까닭으로 이러한 몇 개의 經에 病이 되면 모두가 코에 미칠 수 있는 것이다.'라고 說明하고 있어 鼻에 五臟六腑가 모두 관련을 맺고 있음을 부연하고 있다.

종합적인 內容을 《醫學入門》<sup>50)</sup>의 內容으로 들어 說明하면, “肺系喉管而爲氣之宗”라 하니 그 註에서 '肺肺系有二하니 一系는 相通喉嚨호대 其中에 與心系로 相通肺之系者이니 者膈正中으로 微近左脇하야 居胃之上하고 並胃胞絡及胃脘으로 相連하야 貫膈하야 與心肺로 相通하고 膈膜으로 相綴也라. 一系는 自心으로 入於肺兩大葉之間하야 曲折向後하야 並脊膂細絡으로 相連하야 貫通脊髓하야 而與腎系로 相通이라 腎納氣하고 肺主氣하나니 肺는 主行榮衛하야 謂相傳之官이니 治節이 出焉이오 爲氣之本也니라. 相傳는 與今之尙書니라.'하여 肺系는 두개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一系는 위로 목구멍과 通하되 그 중앙점에서 心系와 함께 肺와 相通한 系이니 膈의 正中으로부터

46) 陳夢雷, 醫部全錄卷5,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p.1281.

47) 王肯堂, 證治準繩, 신문풍출판고분유한공사, 臺北, 1987, p.525.

48) 陳夢雷, 醫部全錄卷5,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p.1289.

49) 張介賓, 景岳全書, 國譯景岳全書, 一中社, 서울, 1992, pp.647~652.

50) 李梴, 蘭室秘藏1인역, 國譯醫學入門, 南山堂, 서울, 1988.



조금 左脇쪽으로 다가서 胃의 上에 있는데 胃胞絡과 胃脘인 食道와 나란히 相連하여 膈을 貫通하여 心肺와 相通하고 橫膈膜과 相系하였다. 또 一系는 心으로부터 肺의 二大葉의 사이로 入하여 굽어져 後로 向하여 脊 筋肉의 細絡과 나란히 相連하여 脊髓를 貫通하여 腎系와 相通하였다. 腎은 納氣하고 肺는 主氣하는데 肺는 主로 榮衛를 運行하므로 相傳의 官(作用)이 되어 節次를 다스리는 作用이 나오는 것이요 氣의 根本이 되는 것이다. 相傳은 마치 오늘날의 尙書벼슬 職責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 다른 곳 心의 臟腑條分에서는 “十有二兩 系通肺葉關元”의 註에서 ‘心重十二兩이니 不論大小하고 皆然하니 以同身寸法으로 秤量 故也라 五臟系는 通於心하고 心通五臟系하니 心之系는 與五臟之系로 相連하여 輸其血氣하며 滲灌骨髓 故로 五臟有病에 先干於心하니 其系는 上系於肺하고 其別者는 自肺兩葉之中으로 向後하여 通脊者 腎하고 自腎而之於膀胱하고 與膀胱膜絡으로 並行而之 澁瀦處하니 乃關元下極部分이라.’라 하여다.

心의 무게는 十二兩이다. 大小를 莫論하고 大그렇다. 同身寸法으로 무게를 달았기 때문이다. 五臟의 絡(血管과 神經)은 心으로 通하고 心은 五臟의 絡과 通하였다. 心의 絡은 五臟의 絡로 더불어 相連하여 그 血氣를 보내며 骨髓를 滲灌하는 것이므로 五臟에 病이 있으면 먼저 心에 犯하게 된다. 그 한 心系는 上으로 肺에 相連하고 그 分岐한 別枝는 肺兩葉의 中央으로부터 後로 向하여 脊을 거쳐 腎에 이르고 腎으로부터 膀胱으로 가고 膀胱의 膜絡과 같이 並行하여 尿孔으로 갔으니 이곳은 關元穴의 下極(혹은 關元和 肛門) 부분이다

이상으로, 肺系는 직접적으로 心系와 연계되어 心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心과 鼻·肺의 관계에 대한 一例로서 ‘噴嚏’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면 ‘鼻腔內가 가려우면서 氣가 噴出할 때 소리가 나는 것으로, 陽氣가 和利하고 心에 充滿하며 鼻로 出하여 되는 것이다. 鼻는 肺의 竅가 되고 痒症은 火가 變한 것이므로 이는 火가 金을 乘하여 病이 된 것인데, 주로 外感風寒에서 많고 心火나 邪熱이 陽明經에 鬱滯되어 發한

다.’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黃元御의 《四聖心源》<sup>51)</sup>을 살펴 보면 “肺竅於鼻 宗氣之所出入. 宗氣者 衛氣之本 大氣之搏而不行 積於胸中 以貫心肺而行呼吸者也.”라 하고 “鼻口者 手足太陰之竅也. 脾竅於口而司五味 肺竅於鼻而司五臭. …… 口鼻之司臭味 非第脾肺之能也 其權實由於心. 以心竅於舌 心主臭而口主味 鼻之知五臭者 心也 口之知五味者 舌也. 心爲君火 膽與三焦爲相火 三焦升則爲清陽 膽木降則爲濁陰 三焦陷而膽木逆 清氣降而濁氣升 則鼻口滯塞而生煩熱 臭味不知矣.”라 하여 心의 作用이 鼻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口까지 미쳐 味覺과 嗅覺이 모두 心의 作用에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鼻口주위에 五臟六腑가 모두 分포되어 있고, 心主色하므로 이곳의 色澤을 보고 臟腑와 精氣의 상태를 볼 수 있다.

## ② 鼻와 腸胃·脾와의 관계

《素問·邪氣藏府病形》 “十二經脈三百六十五絡 其血氣皆上于面 而走空竅 其宗氣 上出于鼻而爲臭이며 註에 宗氣者 胃腑所生之大氣 積于胸中 上出于肺 以司呼吸 故出于鼻而爲臭”라 하고 李東垣은 이에 덧붙여 “夫陽氣宗氣者 皆胃中生發之氣也 氣名雖異 其理則一 若因飢飽勞役 損脾胃 生發之氣既弱 其營運之氣不能上升 邪塞孔竅 故鼻不利而不聞香臭也 宜養胃 使陽氣宗氣上升 鼻管則通矣”라 하였다.

《證治準繩》의 내용중에 “鼻頰中 頰亦作颯 鼻山根也 俗呼鼻梁 俗足陽明胃經 督脈之會”이라 하고, 孫一奎의 말을 빌어 “大腸 肺之腑也 胃 五臟之所受氣者也 經曰 九竅不利 腸胃之所生也”라 하고, 또 丹溪의 말을 빌어 “諸陽聚於頭則面爲陽中之陽 鼻居面中央而陽明起於頰中一身之血運到面鼻部皆爲至清至精至氣矣”라 하였다.

《醫學入門》에서는 “鼻乃清氣出入之道 清氣者 胃中生發之氣”라 했고, 薛己의 《明醫雜著》<sup>52)</sup>에는 “脾胃發生元氣不能上升 邪害孔竅 故不利而不聞香臭也 宜養脾胃 使陽氣上行 則鼻通矣.”라 하였으

51)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四聖心源),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pp.129~131.

52) 王綸, 明醫雜著,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p.89~90.

며, 《黃庭經》<sup>53)</sup>에서는 “天中之岳精謹修”를 설명하면서 ‘天中之岳’을 梁은 註에 鼻라 하고, 李는 註에 脾土라고 하고, “外應中嶽鼻齊位”에 대해 梁은 註에서는 中嶽은 鼻이며 臍에 해당하고 鼻는 七氣之門이고 位는 主한다는 뜻이라하여 肺와 鼻, 臍, 脾가 呼吸을 主한다고 풀었다.

鼻는 位置的으로 顔面의 正中央에 居하여 中央上位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鼻道의 呼吸은 宗氣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宗氣는 胃氣에서 發生함으로 腹部와 脾胃의 질환과 呼吸, 氣道의 流通이 脾胃의 中上에서 이루어지며 아울러 顔面七竅가 모두 腸胃의 影響下에 있음으로 鼻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이는 陽明經이 顔面을 지배함이니 《內經》을 위시한 諸般의 醫書가 이에 대하여 經絡의 側面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素問·熱論》에서는 “傷寒二日, 陽明受之. 陽明主肉, 其脈俠鼻絡于目, 故身熱目疼, 而鼻乾不得臥.”라 했다.

《素問·刺熱》의 “脾熱病者 鼻先赤” 註에 ‘土爲中央 故鼻先赤’라 하였다.

《靈樞·經脈》에 “大腸手陽明之脈 其支者 上挾鼻孔 所生病者 目黃 口乾 衄衄”, “足陽明之脈起于鼻之交頰中 下循鼻外 所生病者 衄衄”라 하였다.

《巢氏病源》<sup>54)</sup>은 “肺主氣 其經手太陰之脈也 其氣通鼻 若肺臟調則脾氣通利而知香臭 若風冷傷於臟腑 而邪氣乘於太陰之經 其氣蘊積於鼻者 則津液壅塞 脾氣不宜調 故不知香臭而爲鼽也 鼻是肺之候”라고 풀었다.

《本草綱目》<sup>55)</sup>의 辛荊花條에서 李時珍이 말하길 “鼻氣通於天 天者頭也 肺也 肺開窺於鼻 而陽明胃脈環鼻而上行 腦爲元神之府 而脾胃命門之竅 人之中氣不足 清陽不升 則頭爲之傾 九竅爲之不利 辛夷之辛溫走氣而入肺 其體輕浮 能助胃中清陽上行通於天 所以能溫中 治頭面目鼻九竅之病 軒岐之後 能

達此理者 東垣李杲 一人而已”라 하였다.

《證治準繩》에서는 “俠鼻孔兩旁五分 名迎香穴 屬手足陽明大腸 胃經之會”라 하고 “屬足陽明胃經 陰蹻脈之會”라 하여, 모두 經絡적인 側面에서 詳考하고 있는 반면에 《醫學入門》<sup>56)</sup>에서는 “脾之大絡은 其系가 自膈下 正中으로 微著左脇하고 於胃之上에 與胃胞絡으로 相附하고 其胃之包는 在脾之上하야 與胃로 相並하여 結絡周回호대 漫脂 遍布하고 上下에 有二系하니 上者는 貫膈하야 入肺中하야 與肺系로 相並而在肺系之後하니 其上은 卽咽門也요 咽下는 胃脘也요 胃脘下는 卽胃之上口也니 其處를 謂之賁門者也라 水穀이 自此而入胃면 以胃出穀氣하야 傳之於肺하나니 肺在膈上일새 因曰賁門이니 其門과 膈膜相貼之間은 亦漫脂相包也라 若胃中水穀이 腐熟則自幽門而傳入於小腸 故로 言太倉之下口를 胃賁門이니라.”라 하여 ‘脾의 大絡은 그 줄이 橫膈膜下의 正中으로부터 조금 左脇으로 附着하고 胃의 上에 있어서 胃의 胞絡과 相附하고 그 胃가 싸는 것은 脾의 上에 있어서 胃의 것과 相並하여 맺고 얽으며 두르되 느슨하게 생긴 脂肪이 全部에 깔려 있고 그 上下部에 二系가 있다. 上部에 있는 줄은 橫膈膜을 뚫고 肺中으로 들어가 肺系와 相並하되 肺系 뒤쪽으로 있으니 그 위는 바로 咽門이다. 咽門의 아래는 胃脘인 食道이고 胃脘의 아래는 바로 胃의 上口니 그 곳을 賁門이라고 하는 것이다. 飲食이 이곳으로부터 入胃하면 胃가 消化後에 穀氣인 營養素를 내보내 肺로 전해 준다. 肺는 橫膈膜上에 있으므로 胃의 이와 같은 作用을 因하여 賁門이라 하는 것이다. 이 賁門과 橫膈膜이 서로 붙어 있는 사이에는 역시 느슨하게 생긴 脂肪으로 相包하였다. 만약 胃中의 飲食이 消化되면 幽門으로부터 小腸으로 傳入하므로 太倉인 胃의 下口를 幽門이라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비계가 위로 폐계와 연계됨으로 인하여 비위의 기운이 흉중을 거쳐 비에 이르러 호흡과 취각과 각종 생리적 현상들이 이루어 진다고 보았다. 또한 ‘胃 속에 있는 水穀의 精氣는 肺로 올라

53) 이병서, 黃庭內景經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論文 5-2호, 1997.

54) 浙江省中醫研究所編, 醫方類聚,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79, p.452.

55) 李時珍, 本草綱目, 高文社, 서울, 1973, pp.110 7~1108.

56) 李樞, 安病錄외1인역, 國譯醫學入門, 南山堂, 서울, 1988.

가고, 肺는 올라온 맑은 것 중에서 다시 맑은 것을 분리하여 心으로 보내어 血脈을 살리고 全身에 營養을 주며 맑은 것 중에서濁한 것을 分利하여 胃로 보내어 小腸과 膀胱으로 내려보낸다.'고 부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黃元御는 進一步하여 《四聖心源》<sup>57)</sup>에서 人體 氣의 升降을 鼻와 口의 관계로 파악하여, 肺와 脾胃와의 관계와 心의 영향을 強調하고 있으니 “鼻口者 手足太陰之竅也. …… 人身之氣 陽降而化濁陰 陰升而化清陽. 清則沖虛 濁則滯塞 沖虛則生其清和 滯塞則鬱爲煩熱. 上竅沖虛而不滯塞 清和而不煩熱者 清氣升而濁氣降也. 濁降而清升 故口知五味而鼻知五臭. 而口鼻之司臭味 非諸脾肺之能也 其權實由於心. 以心竅於舌 心主臭而口主味 鼻之知五臭者 心也 口之知五味者 舌也. 心爲君火 膽與三焦爲相火 三焦升則爲清陽 膽木降則爲濁陰 三焦陷而膽木逆 清氣降而濁氣升 則鼻口滯塞而生煩熱 臭味不知矣. 而清氣之升 由鼻而上達 濁氣之降 自口而下行. 蓋鼻竅於喉 口通於咽 鼻者清氣之所終 口者濁氣之所始也. 喉通於藏 咽通於府 喉者地氣之既升 咽者天氣之初降也. …… 升清之權在於太陰 太陰陷則乙木不能升其清 降濁之氣 在於陽明 陽明逆則辛金不能降其濁. 得升降之宜 則口鼻之竅和暢而清通矣.”라고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③ 鼻와 腦의 관계된 膽·腎·膀胱·督脈

鼻와 腦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鼻淵이라는 병명에서 유래된 것으로 鼻淵은 여러가지 異名을 가지고 있는데 明代의 《普濟方》에서는 ‘腦瀉’라고 하고 《本草綱目》에서는 ‘腦崩’이라 하였으며 《醫學入門》에서는 ‘腦砂’로 불리운다.<sup>58)</sup> 《素問·氣厥論》 “膽移熱于腦 則辛頰鼻淵 鼻淵者 濁涕下不止也 傳爲衄”의 註에 ‘膽氣上升 則熱隨入腦. 俠鼻兩旁曰頰 辛頰者 鼻頰辛酸也 鼻淵者 濁涕下不止也 蓋腦爲精髓之海 髓者骨之充也 腦者陰也 故腦滲則爲涕 楊元如曰 腎主藏精而居下 腦爲精髓之海而

居上 膽者中精之府也 三者並主藏精 精氣相通 故膽邪移入于腦也 熱氣上升 迫于絡脈則爲衄’라 했으니, 이에 ‘膽이 腦에 移熱하게 되면 辛頰鼻淵한다’고 한 것은 膽氣가 上升하면 熱이 上升하는 氣를 따라 腦로 들어갔다가 鼻兩旁을 俠한 經絡을 따라서 下流한다. 이 疾患은 飲酒를 過度하게 한 후 바람을 쐬고 누워있어서 風邪가 膽內로 들어가 膽의 酒毒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腦로 熱을 옮겨갔기 때문이다. 腦는 精髓의 海이며, 髓란 骨에 充한 것이고 腦는 陰이다. 그러므로 腦가 滲泄하면 곧 涕가 된다 또한 膀胱은 津液의 腑로서 氣化하면 出한다. 그러므로 鼻孔이 밖에 있는 것은 鼻孔의 氣가 밖으로 나와서 膀胱이 漏泄한다는 것이니 대개 上竅로 通하고 下竅로 泄한다. 腎은 藏精을 主하여 下位에 있고 腦는 精髓의 海로서 上位에 있고 膽은 中正의 腑이다 臟器가 모두 藏精하므로 精氣가 相通하게 되며, 따라서 膽邪가 腦로 移入하는 것이다. 혹은 술을 잘하는 사람은 膽氣가 旺盛하여지고 叱號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술이 먼저 膽으로 들어가나 膽에서 술을 抑制하지 못하면 火毒이 있게 된다. 膽은 木에 屬하는 것으로 가장 싫어하는 것은 風寒邪이다. 寒邪가 侵犯하면 內熱이 더욱 甚하여지며 膽이나 頭部는 陽이므로 膽熱이 頭腦로 쉽게 上走하나 頭腦는 熱을 간직할 곳이 없기 때문에 經絡이 聯關되어 있으면 곧 돌아갈 것이나 膽은 太過하여 膽으로 돌아가지 않고 腦에서 오랫동안 머물어 있거나 動搖가 極甚하면 聯關된 經絡과의 竅를 찾아서 나오므로 鼻로 나타나게 된다. 火毒이 淺部에 있으면 清涕가 되고, 火毒이 深部에 있으면 濁涕가 계속 흐르며 오랜 시일이 지나면 흐르는 鼻滯가 없어진다. 이것은 腦液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素問·解精微論》 “泣涕者腦也 腦者陰也 髓者骨之充也 故腦滲爲涕”과 《靈樞·刺法論》 “帝曰 余聞五疫之至 皆相雜易 天牝從來 復得其往 氣出于腦”라고 하였고, 《宣明論》<sup>59)</sup>에서는 “膽受胃熱 循脈而上于腦 陽絡溢血妄行

57)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四聖心源),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pp.129~131.

58) 浙江省中醫研究所編, 醫方類聚,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79, pp.452~456.

59) 浙江省中醫研究所編, 醫方類聚,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79, p.474.

在鼻空竅 目瞑”라 했고, 《醫部全錄》<sup>60)</sup> 處方中赤龍散에서 설명하길 ‘大抵肺氣注于鼻 上榮頭面 若上焦壅滯 風寒客于頭腦 則氣不通 冷氣停滯 搏于津液 膿涕結聚 則鼻不聞香臭遂成癰也’라고 하였으며 《黃庭經》에서는 “九氣映明出霄間”을 설명하면서 務는 註하길 ‘九天之氣가 入於人鼻하야 周流腦宮하야 映明上達故로 曰出霄間이라’하야 鼻와 腦가 連絡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이에 《證治準繩》에서는 “鼻淵中 頰亦作鰾 鼻山根也 俗呼鼻梁 俗足陽明胃經 督脈之會”라 하고 《素問·氣厥論》을 인용하야 註하기를 “足太陽膀胱脈起目內眥 上額交巔絡腦 陽明脈起于鼻 交頰中 旁約太陽之脈. 今腦熱則足太陽逆與陽明之脈俱盛 薄于頰上. 故頰辛鼻淵. 頰辛者 鼻酸痛也 …… 鼻淵者 濁涕下而不止如水泉也 熱盛則陽絡溢 陽絡溢故衄 衄者鼻出血也 又謂之鰾 血出甚則陽明太陽脈衰 不能榮于目 故目瞑也”라 하였다. 足太陽膀胱經은 目內眥에서 起하여 頰으로 上行하여 巔頂에서 사귀고 腦에 絡한다 하고 陽明脈은 鼻에서 起하여 頰中에서 交하여 太陽脈의 옆을 끼게된다. 이제 腦熱이 된 것은 足太陽經이 逆하고 手足陽明의 脈이 모두 盛하여져서 頰中으로 薄하므로 鼻가 酸痛하면서 鼻淵의 症狀이 있게 되는 것이다. 鼻淵이란 濁涕가 끊임없이 샘처럼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이며, 熱이 盛하면 陽絡이 넘쳐나게 되어 衄이 되는 것이며 鰾이라는 것은 出血이 甚하여 陽明太陽脈이 衰하여 目を 榮할 수 없어 目瞑해지는 것이다.

《景岳全書》의 “鼻淵證緣由太陽督脈之火 甚者上連于腦 而津津不已 故又名爲腦漏”에서 鼻淵證은 모두 太陽·督脈의 火로 말미암으니 甚한 것은 위로 腦에 上連하여 끊임없이 그치지 않으니 또 다른 이름으로 ‘腦漏’라 부르게 된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타당한 이유로 經絡的인 連絡 즉 膀胱經 督脈으로 인해 腦와 鼻가 連結되어 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督脈의 經路分布를 보면 ‘下腹部의 胞中에서 起始하여 아래로 會陰으로 나온 후 背部正中線을 따라 脊柱를 順行하여 위로 項後의

風府穴에 이르러 腦에 入하고 동시에 項에서 頭部正中線을 따라 頭頂, 額部, 鼻柱를 지나 上脣에서 鰾交穴에 이른다. 足太陽膀胱經에서 함께 內眼角에서 起始하여 額部로 上行하여 頭頂部에서 足太陽膀胱經과 交會하고 腦에 入絡한다’하였고, 膀胱經에 대해서 “足太陽膀胱脈起目內眥 上額交巔絡腦 陽明脈起于鼻 交頰中 旁約太陽之脈. 今腦熱則足太陽逆與陽明之脈俱盛 薄于頰上. 故頰辛鼻淵. 鼻淵者 濁涕下而不止如水泉也 熱盛則陽絡溢 陽絡溢故衄 衄者鼻出血也 又謂之鰾 血出甚則陽明太陽脈衰 不能榮于目 故目瞑也”라 하니 足太陽膀胱經은 目內眥에서 起하여 頰으로 上行하여 巔頂에서 사귀고 腦에 絡한다하고 陽明脈은 鼻에서 起하여 頰中에서 交하여 太陽脈의 옆을 끼게된다. 이제 腦熱이 된 것은 足太陽經이 逆하고 手足陽明의 脈이 모두 盛하여져서 頰中으로 薄하므로 鼻가 酸痛하면서 鼻淵의 症狀이 있게 되는 것이다. 鼻淵이란 濁涕가 끊임없이 샘처럼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이며, 熱이 盛하면 陽絡이 넘쳐나게 되어 衄이 되는 것이며 鰾이라는 것은 出血이 甚하여 陽明太陽脈이 衰하여 目を 榮할 수 없어 目瞑해지는 것이며, 《難經》의 “夫太陽膀胱中所化之氣는 由氣海循衝任하야 過膈於肺하야 出之於鼻하야 爲呼出氣”에서 註에 ‘《靈樞·本輸》에 腎舍膀胱하니 膀胱者는 津液之府也라하고 少陽屬腎하니 腎上連肺라 故將兩藏이라하고 三焦者는 中瀆之府也라 水道出焉이오 屬膀胱이니 是孤之府也라하니 經言腎將兩藏者는 以腎兼主水火二氣也오 少陽三焦之脈이 散于胸中 而腎脈亦上連于肺라 肺爲天而主氣라 三焦는 之下俞하야 屬于膀胱 而膀胱主水하니 亦生于腎이라’하였다.

《景岳全書》에서도 “鼻爲肺竅 …… 然其經絡所至專屬陽明 自山根以上則連太陽督脈 以通于腦 故此數經之病皆能及之 若其爲病 則窒塞者謂之鰾”라고 하여 鼻는 肺의 竅이지만 經絡이 도달하는 것은 오로지 陽明에 屬하고 山根의 以上은 太陽과 督脈에 이어져서 腦로 통하는 까닭으로 이러한 몇 개의 經에 病이 들면 모두가 鼻에 미칠 수 있다라고 하여 經絡的인 連絡으로 인한 病症이라 認識하였다.

5. 鼻의 望診의 意味

60) 陳夢雷, 醫部全錄卷5,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p.1317.

《靈樞·五色》<sup>61)</sup>에서 이르길 “脈見於氣口 色見於明堂 明堂者 鼻也”라 하여 鼻部는 곧 明堂이니 人體 顔面의 正中央에 위치하여 面部色診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으며, 또 “內外合一”, “中以候中”의 理致로 鼻部를 중심으로 한 面部正中央에 五臟六腑의 精氣가 集中되어 있으니, 《靈樞·五色》<sup>62)</sup>에서 “庭者, 首面也. 闕上者, 咽喉也. 闕中者, 肺也. 下極者, 心也. 直下者, 肝也. 肝左者, 膽也. 下者, 脾也. 方上者, 胃也. 中央者, 大腸也. 挾大腸者, 腎也. 當腎者, 臍也. 面王以上者, 小腸也. 面王以下者, 膀胱子處也”라고 顔面을 部位別로 說明하면서 鼻部를 중심으로 한 面部正中央에 五臟六腑가 集中的으로 위치하여 이곳 鼻를 중심으로 五臟六腑의 精氣가 集中되어 있으니 鼻의 根部(山根)에 心肺가 놓여있고, 鼻주위에 六腑가, 下部에 生殖器가 놓이게 되었으니 明堂과 그 주위의 色澤으로 五臟六腑의 精氣 變化를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明堂은 面部望診의 準繩이 되어 鼻를 달리 面王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山根을 달리 下極이라고 하는데, 鼻根部 양쪽 目內眥 사이에 위치한다. ‘中以候中’이라 하니 山根은 目內眥의 사이에 위치하여 手少陰經脈이 “還目系” 하고 手太陽小腸經이 目內眥에 도달하니 心과 小腸經脈은 서로 表裏가 되어 그 經氣가 目內眥에 도달하므로 山根의 色澤은 心의 상태를 反映하게 된다. 臨床적으로 心臟病이 있는 사람에게선 山根部位에 明顯한 白光白色이 나타나며 心陽虛에서는 더욱 甚하게 나타나며, 心血瘀阻의 輕症에는 靑灰色澤이, 重症에선 暗紫하게 된다. 小兒의 診斷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시되니 小兒가 山根에 靑灰色이 나타나면 心陽不足, 靑色이면 驚風의 前兆, 暗해지면 氣厥하게 된다. 또한 山根 部位의 筋肉이 ‘一’字 모양이면 消化系統의 疾患을, ‘1’字 모양이면 呼吸器 疾患이 있음을 알 수 있다.<sup>63)</sup>

또 五官 중에 鼻는 脾土에 해당하여 鼻는 脾胃 疾患의 情況을 나타내는 특별한 가치를 가졌다 할 수 있으니 鼻準頭는 腹臍에 대응이 되니 《金匱要略》<sup>64)</sup>에서 이르길 “鼻頭色靑 腹中痛 苦冷者死”, “鼻頭色微黑者 有水氣 色黃者 胸上有寒 色白者 亡血也”, “色靑爲痛 色黑爲勞 色赤爲風 色黃者便難 色鮮明者留飲”이라 하였으니 위로는 鼻를 보아 아래의 腹部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니 이는 鼻에 五臟六腑의 精氣의 盛衰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鼻部位에 黃色이 은은하게 나타나는 것은 脾氣가 다시 回復되는 徵兆로 吉하니 이때엔 반드시 黃色에 光澤·明潤이 함께 나타나야 되며, 만약 鼻에 黃色이 나타나나 乾燥하여 土偶之形이면 이는 脾氣가 絶한 形局으로 主死하게 되는 것이다. 鼻部의 望診에 대하여 清代 周學海<sup>65)</sup>는 말하길 “鼻頭色黑而 枯燥者 房勞 黑黃而漸者 有瘀血 赤爲肺熱 鼻孔乾燥 目瞑 漱水不欲咽者 欲衄也 鼻孔黑如烟煤而燥者 陽毒也 鼻孔爛張者 肺絶也 但煤黑而不爛不喘者 燥熱結于大腸也 黃黑枯槁 爲脾火津涸 大便燥結鼻塞 濁涕者 風熱也 鼻孔冷滑而黑者 陰毒也 鼻頭汗出如珠 爲心脾痛極”이라 하였다. 《證治準繩》<sup>66)</sup>에서는 “鼻孔乾燥者 屬陽明之熱 必將衄血也 鼻孔乾燥 黑如烟煤 陽毒熱深也 鼻孔冷滑而黑者 陰毒冷極也 鼻孔爛張者 爲肺風 肺絶而不治也”라 하였다.

### III. 結 論

이상으로 鼻의 生理作用과 經絡·臟腑와의 관계, 望診의 意味를 여러 문헌을 통해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鼻를 望診의 意味를 강조하여 明堂, 面王이라고 하고, 天氣가 出入하는 門戶로서의 意味를 부각시켜 元牝之門, 天牝之門, 七氣之門이라 불리운다. 위치적으로 顔面의 中央에 위치하므로 天中之嶽,

61) 楊維傑編, 黃帝內經靈樞譯解, 태연국풍출판사, 臺北, 1991, p.367.

62) 楊維傑編, 黃帝內經靈樞譯解, 태연국풍출판사, 臺北, 1991, pp.367~368.

63) 楊力, 중의질병예측학, 북경과학기술출판사, 북경, 1991, pp.63~65.

64) 張仲景, 이재희編, 金匱要略詳解, 미화출판사, 서울, 1981, pp.52~66.

65) 楊力, 中醫疾病豫測學, 北京科學技術出版社, 北京, 1991, pp.63~65.

66) 王肯堂, 證治準繩, 신문풍출판고분유한공사, 臺北, 1987, pp.524~530.

中嶽이라 불리운다.

2. 鼻의 體는 肺金에 속하며 用은 心火에 속하고, 鼻에서 香臭를 맡을 수 있고, 體로서 呼吸의 통로가 되며 共鳴器작용을 한다.

3. 望診에 있어서는 鼻를 中心으로 하여 그 주위에 五臟六腑가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그 精華가 鼻에 드러나므로, 色診의 準繩이 된다.

4. 鼻를 肺候라고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手太陰肺經과는 연락하는 부분은 없고, 肺證에 鼻部에서 부터 먼저 證候가 나타나므로 機能的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5. 經絡의으로는 陽明經, 膀胱經, 督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이 經絡들에 의한 연결을 통해 脾·胃·心·腎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呼吸作用, 氣機升降作用, 嗅覺作用이 이루어지며, 各 臟腑의 病變이 鼻에 나타나게 된다.

6. 특히, 陽明經과 膀胱經은 중요하여, 鼻를 통해 天氣가 心肺에 이르고, 口를 통해 地氣가 脾胃에 이르러 膀胱經을 거쳐 營衛가 行하므로 鼻는 營衛循環과 氣機升降의 要諦가 된다.

11. 李擬, 안병욱·채인식譯 : 國譯醫學入門, 南山堂, 서울, 1988.

12. 楊士瀛 : 仁齋直指方, 東醫社, 서울, 1978.

13. 黃元御 : 黃元御醫書十一種(四聖心源),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14. 浙江省中醫研究所編 : 醫方類聚,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79.

15. 陳夢雷 : 醫部全錄卷5,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16. 楊力 : 中醫疾病豫測學, 北京科學技術出版社, 北京, 1991.

17. 楊維傑編 : 黃帝內經靈樞譯解, 태련국풍출판사, 臺北, 1991.

18. 程士德主編 : 素問注釋滙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19. 이병서 : 《黃庭內景經》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論文 5-2호, 1997.

20. 홍영식 : 奇經八脈과 八脈交會穴에 對한 文獻의 考察, 大田大學校論文 5-1호, 1997.

## 參考文獻

1. 扁鵲, 성낙기譯 : 八·難經解釋, 高文社, 서울, 1980.

2. 張介賓, 김영남譯 : 國譯景岳全書, 一中社, 서울, 1992.

3. 唐容川 : 상지대졸업준비위원회편저, 國譯血證論, 一中社, 서울, 1997.

4. 王肯堂, 證治準繩 : 신문풍출판고분유한공사, 臺北, 1987.

5. 李時珍 : 本草綱目, 高文社, 서울, 1973.

6. 許浚 :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87.

7. 蔡炳允 : 東醫眼耳鼻咽喉科學, 集文堂, 서울, 1997.

8. 本間祥白 : 難經之研究, 정언출판사, 1965.

9. 王綸, 明醫雜著 :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10. 張仲景, 이재희編 : 金匱要略詳解, 미화출판사, 서울, 1981.